



지역 소식

지역 회장단 새해 메시지

참된 개종 세 가지 우선 순위



Goyochi Aoyagi

고이치 아오야기



Michael Ringwood

마이클 티 링우드



Scott D. White

스코트 디 와이팅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한 해 내내 그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편 복음에 내재된 ‘참된 개종’ 및 ‘영적 자립’을 이루는 것 또한 가장 훌륭한 전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나는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겠다!’ 또는 ‘올해 나는 이렇게 또는 저렇게 되고 싶다!’와 같은 목표를 세우면, 선지자가 충고한 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참된 개종’으로 인도되고 ‘영적

자립’을 이룰 것입니다. ‘참된 개종’은 현재까지 지속된 우리의 잘못과 단점을 회개하려고 결심할 때 시작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행위가 변화되는 ‘참된 개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성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되돌아갈 때까지 이 ‘참된 개종’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수년 전,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님이 이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선견적인 우선순위’에 관하여 조언을 주시며, 우리에게 일상 생활에서 이 우선순위를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견적인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쿡 장로님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주님과 개인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강화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교회 내 (정원회) 형제들과 자매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런 것을 하고 난 후에, 다음 우선순위는 직장和社会 내에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인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 강화”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음 과정을 매일 행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우리의 죄와 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변화하려고 결심하고, 주님의 속죄 권능으로 정결하게 되며, 주님의 사랑과 영의 속삭임을 받고, 그런 후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모든 일을 우리의 능력 안에서 신앙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자발적으로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가까워졌다고 느끼게 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속죄 권능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모사이야서 4:12 참조)

두 번째 우선순위인 “자신의 가족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함께 첫 번째 우선순위인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적 자립을 성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가족이 자발적으로 매일 가족 기도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매일 물문경을 읽으며, 매주 가정의 밤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려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고리로 함께 묶이고, 주님의 영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모로나이사서 7:4~47 참조) 이는 주님의 영은 사랑이 없는 곳이나 죄악이 있는



곳에는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21:37, 41~42 참조) 남편과 아내는 특히 부부로서 승영에 오르길 열망해야 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완전히 충실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42:22; 교회 지침서 제2권 1.3.1 참조) 이와 같은 부모를 본 자녀들은 미래에 자신들도 이와 같은 배우자 관계를 맺길 원할 것입니다. 일순간에 이처럼 완전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 안에서 희망을 지니고, 신앙을 행사하며, 매일 더 나은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인 “교회 내 (정원회) 형제들과 자매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겠습니까? 경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 하며, 각 사람에게 그에게 당연한 것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 또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굶주리거나, 헐벗게 되도록 그들을 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며 ……”(모사이야서 4:13~14 참조). 마찬가지로, “또한 너희 스스로는 너희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제할 것이요, 너희는 공핍에 처한 자에게 너희의 재물을 베풀 것이며, 너희는 구걸하는 자가 너희에게 올리는 간청이 헛되도록 버려 두고, 그를 쫓아내어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모사이야서 4:16 참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해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하니라.]”(모사이야서 18:8~9 참조)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이 세 가지 우선순위를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실행한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이 조언한 “영적 자립”을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지니고 기도하고 기쁘게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모사이야서 2:44 참조)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비전에 가까워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족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변화(개종)가 일어나며, 여러분의 삶에서 무한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길 간구합니다. ■

소셜 미디어 선교 훈련 모임

“소셜 미디어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에게,
개별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계적인 도구입니다.”
- 데이비드 이 베드나 장로

2014년 10월 25~11월 2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순회하는 소셜 미디어 선교 훈련 모임이 열렸다. 지역 회장단의 스코트 디 와이팅 장로, 지역 칠십인 오히근, 김창호, 정태걸 장로, 비영리 조직 모어 굿(More Good) 재단의 조나단 존슨 회장과 모어 굿 재단 한국 책임자인 연수정 자매, 홍보 위원회의 유효상 형제가 훈련을 진행했다.

“인 터넷에서 너희 교회 검색해봤어.”
비회원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친구는 어떤 정보를 얻었을까? 여러분은 그 친구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는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흔히 인터넷을 검색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며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삶을 접하기도 쉽지 않다.

소셜 미디어 선교 훈련 모임에서 모어 굿 재단의 회장 조나단 존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구도자가 1토론 직후 인터넷에서 교회에 대해 검색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로 얻게 됩니다. 선교사에게 받았던 영적인 느낌은 사라지고 교회에 대해 오해하게 되며, 대부분이 선교사 토론을 중단합니다.”

10월 25일과 26일, 서울에서 모임을 감리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와이팅 장로는 브리검 영 회장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여 과학 기술이 발달한 이유와 목적이 구원 사업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에게 참으로 충실하고 유익한 과학과 예술에서의

모든 발견은, 인식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죄와 사탄의 힘으로부터 지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준비할 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1862년에 주어진 말씀, 브리검 영 설교집 18쪽)”¹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은 구원 사업을 위한 수단이다. 모임의 연사들은 회원들이 이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 구원 사업을 서두르도록 권유했다. 예를 들어, 회원들은 자신의 간증이나 교회에 대한 소개를 블로그에 올릴 수 있다. 워드 회원들과의 활동 모임 사진 등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좋다. 교회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우하거나(follow: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 페이지 내의 게시물에 댓글을 적는 것도 선교 사업의 좋은 방법이 된다. 회원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믿음을 나눈다면 비회원은 인터넷에서 교회를 검색하고 회원들의 글을 접하게 된다. 비회원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교회의 열매인 회원들의 간증과 일상을 접함으로써 교회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선교’에 대한 간증

제가 가르치던 한 구도자는 진지하게 복음을 배우고 있었지만 침례를 받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에서 교회에 관해 검색했고, ‘인생의 목적’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글은 제가 쓴 것을 유효상 형제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대신 게시해준 것이었습니다. 글쓴이가 자신을 가르치고 있는 선교사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이 선교사가 언제 어디서나 올바른 언행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고 곧 침례를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간증을 나누기 부끄럽다거나, 귀찮다거나, 자신의 간증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진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 여러분의 간증은 분명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영적인 발전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선교부에서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 최용섭 장로



유효상 형제와 연수정 자매는 아래와 같이 소셜 미디어 선교 사업의 6가지 원리를 전했다. 유 형제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청소년에게 권고했던 ‘6가지 B’를 활용했다.²

1. Be grateful: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현실을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활동하십시오.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든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스마트폰이 없는 것에 개의치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2. Be smart: 지식을 쌓으십시오

현명하게 활동하십시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전자 기기를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면 배우십시오. 스마트폰을 들고 와드의 청소년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청소년 여러분은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환경과 도구를 잘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Be clean: 깨끗하십시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내가 만드는 것은 물론 타인의 콘텐츠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좋지 않은 게시물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교회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좋은 글을 보도록 해주십시오.

4. Be true: 진실하십시오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활동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솔직할 때 가장 진실한 간증이 전해질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려 말하지 마십시오.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아는 만큼만, 진솔하게 간증을 나누십시오. 더불어 익명성을 이용해서 가면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5. Be humble: 겸손하십시오

타인에 대한 비방, 모욕 등의 호전적인 행동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며 온유함을 잃지 마십시오.

“순수한 간증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을 돌이키게 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음이라(앨마서 4:19)”

누군가 여러분의 글을 비방하더라도 싸우거나 논쟁하지 말고 겸손하고 친절히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결국,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왼쪽 페이지 위 사진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훈련 모임에서 말하는 와이팅 장로, 모어굿 재단의 존슨 형제, 연수정 자매 맨 위 사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월 25일 영등포 와드에서 훈련 모임에 참석한 지도자와 청년 및 청소년, 같은 날 훈련을 듣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 11월 2일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린 훈련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

가져올 것입니다.

6. Be prayerful: 기도하십시오

그저 SNS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콘텐츠가 꼭 필요한 이에게 도달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활동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친구를 떠올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과 일상을 나누십시오. 꼭 필요한 이에게 우리의 게시물이 도달하기를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장로는 누구든지 인터넷에서 믿음을 나눌 수 있다며, 물론 메시지 동영상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던 경험을 나누었다.

“메신저로 동영상의 링크를 보내는 데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수단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정확하게 알린다면, 우리가 열심히 선교 사업을 한다면,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모임을 마무리하며, 와이팅 장로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구원 사업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더 배우도록, 워크숍을 열 예정입니다. 이러한 구원 사업이 갑자기 불어났다가 빠져버리는 돌발성 홍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간증이 지속적인 홍수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구원 사업의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할 때 저는 신 나는 기분이 듭니다.”

전국에서 약 1,000명의 성도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열린 이 모임에 참석했다. 청소년과 젊은 독신, 성인 회원 등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이 선교 사업의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 영등 스테이크의 청년 한진영 자매는 “소셜 미디어라는 수단으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라고 말했다. 서울 스테이크의 사공해녀 자매는 “예전에 인터넷에서 교회를 검색했을 때 비방하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활동은 우리의 선교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라고 전했다. ■

주

1. 데이비드 이 베드나,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리니”(브리검 영 대학교 교내 교육 주간에 전한 말씀, 2014년 8월 19일) 참조: <https://www.lds.org/prophets-and-apostles/unto-all-the-world/to-sweep-the-earth-as-with-a-flood?lang=kor>.
2. 청소년들을 위한 예언자의 권고와 기도, 고든 비 헝클리 회장,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30~41쪽.

훈련 모임의 동영상은 lds.or.kr/소셜-미디어-선교-훈련-모임-동영상에 게시되어 있다. 훈련 모임에서 사용한 발표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삶과 기록은 값진 것입니다

올 2015년은 한국에 교회가 헌납된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이를 기념하며, 지역 소식에서는 역사 위원회와 함께 2015년 한 해동안 특집 기사를 게재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기사로서, 리차드 이 텔리 형제의 말씀을 요약하여 게재한다. 교회 역사부 책임자인 텔리 형제는 한국을 방문하여 11월 16일과 22일, 창원과 청주 스테이크에서 노변의 모임을 열었다. 그는 한국 종교학회의 초청으로 교회 역사에 대해 발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리차드 이 텔리

교회 역사부 책임자

교회가 조직되던 해에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를 교회 역사가로 부르셨습니다. 올리버가 이 부름에서 해임된 뒤, 존 휘트머를 두 번째 교회 역사가로 부르시며 “정규 역사를 기술하고 기록”하며 “[그]에게 주어질 모든 것을 필기”하라는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7:1) 주님은 존의 임무에 대해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 교회 기록과 역사를 계속하여 기록하는 일이 그에게 임명되리니”(3절). 여기서 우리는 “계속하여 기록”한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모든 와드와 지부, 스테이크와 지방부는 자신들의 역사를 계속 기록해야 하며, 그렇게 기록된 전 세계의 교회 역사는 솔트레이크시티로 모이고 있습니다. 와드나 지부의 기록들이 지금은 크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록들은 점점 더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세 살(1931년) 때 외삼촌과 함께 치명적인 병에 걸렸는데 외삼촌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사건으로 외조부모님이 저활동에서 활동 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관한 내용이 교회 역사 기록에도 남아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기록 가운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 다니셨던 지부의 1931년 기록을 보던 중 어느 간증 모임 기록을 찾았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그 모임에서 딸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세상을 떠난 아들과 훗날 함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합당하게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부의 역사 기록을 계속 보면서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신권을 받고, 지부 회장에 성임되었다는 기록도 읽었습니다. 그 지부는 오늘날 스테이크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에는 그 기록들이 아주 평범한 것이였겠지만 오늘날 그 기록은 제게 매우 값진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28편 8절에는 우리가 땅에서 기록하는 것은 하늘에서도 기록될 것이고, 땅에서 기록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옴나이스 1장에는 물레크인들이 미대륙으로 건너오면서 기록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존재를 거부하게 되었고, 결국 후손들에게 그 신앙이 전해질 수 없었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또한, 모사이아서 1:3~4에서 베냐민 왕은 낯선 판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리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 구도자, 다른 회원들에게도, 또한, 교회에서 멀어진 이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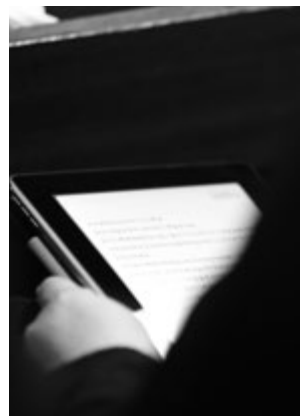
기록을 남기는 일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록을 대신 써 줄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중요한 일들도 그렇습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는 일도, 성찬을 취하는 것도, 엔다우먼트를 받는 일도 모두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행해집니다. 기록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자신의 인생이 기록으로 남길 만큼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교리와 성약 18:10)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 역시 무척 소중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더 강한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개척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들을 기록하십시오. 한국의 성도들은 대부분 복음 1세대 혹은 2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개척자-곧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영감을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기록을 남겨야 할 이유를 모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니파이와 물론도 주님으로부터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니전 9:5; 몰말 1:7 참조)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교리와 성약 123편에서, 선지자 조셉은 이 책임에 관해 “이는 ……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세 번이나 거듭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이 많”고 “장래에 성도에 관한 많은 일이 이 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큰 열성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아무도 이러한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록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중요하고, 교회에도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기록은 점점 더 귀한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지금 충분한 기록을 남기십시오. ■



맨 위 사진들: 창원 스테이크에 모인 회원들이 연사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바로 위 왼쪽: 정태걸 장로는 홍보 위원회 봉사 선교사 로버트 번스 장로, 역사 위원회 서희철 형제, 지역 소식 담당자 한경아 자매, 창원 스테이크 윤성봉 형제에게 짧게 말씀하도록 지명했다. 번스 장로는 1970년대 한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선교사 음악 밴드 뉴호라이즌즈로 활동했다. 뉴호라이즌즈가 진해에서 공연했을 당시, 수천 명의 관중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음악에서 주님의 영을 느꼈다

왼쪽: 윤성봉 형제는 뉴호라이즌즈의 진해 공연 당시 중학생이었으며 공연을 들으며 느낀 감동을 청중과 나누었다. 당시 뉴호라이즌즈의 음악에 감화되어 여러 사람들이 개종했던 기억을 회상했다.

바로 위: 서희철 형제는 신앙의 선배이자 마산 와드 감독이었던 정대판 형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기록을 보며 받았던 영향을 전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원 화성 문화제, 그리고

가족 역사 사업

매년 10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수원 화성 문화제'가 열린다. 2014년 수원 화성 문화제는 국내의 85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수원시 보도 자료) 성황리에 축제의 막을 내렸다. 이 축제에는 정조 대왕의 역사를 비롯하여 한국 역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행사와 전시가 마련되었다. 축제장 내의 여러 부스 가운데, '나의 뿌리, 조상에 대해 알아보기'라는 현수막이 걸린 부스가 눈에 띄었다. 이 부스는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한 것이다.

수원 스테이크 가족 역사의 날을 기념하며 두 가지 행사를 열었다. 첫째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수원 화성 문화제에서 가족 역사 관련 전시회를 열었고, 둘째로 11일 저녁에 신봉 와드에서 가족 역사 세미나를 연 것이다. 행사를 통해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은 가족과 뿌리 찾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으며, 더불어 선교 사업의 효과도 기대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수원 스테이크의 회원과 전임 선교사 등 약 150명이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다.

전시회의 제목은 '나의 뿌리, 조상에 대해 알아보기'였다. 전시회가 열린 부스에서 FamilySearch 웹 사이트(FamilySearch.org)를 소개하고 나의 가족 책자에 자신의 가계도와 가족 역사를 기록하는 활동 등을 운영했다. 전시회장에는 흥미를 끄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 성씨들이 적혀있었고, FamilySearch 웹 사이트를 소개하는 내용도 있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축조한 정조 대왕의 가계도도 있었다. 정조

대왕의 지극한 효심과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로 돌리는 가족 역사 사업의 정신이 꼭 닮아있었다.

부스가 운영된 동안 1,000여 명이 방문했으며 그중 600여 명이 나의 가족 책자에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봉사자로 전시 행사에 참여한 신봉 와드의 이진희 자매는 행사와 방문객을 통해 느낀 점을 이렇게 말했다.

“교회에서 배웠던 가족의 소중함과 뿌리를 잘 아는 것에 대해 다른 시민들에게 전할 기회가 생겨서 참 좋았고요,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신봉 와드에서 가족 역사 세미나가 열렸다.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 특히 조상과 나의 관계에 대한 연사의 말씀이 있었다. 또한, 가족 역사부의 홍하식 형제가 방문하여 FamilySearch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 이용 방법에 대해 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오히근 장로는 이렇게 전한다.

“가족 역사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조상들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우리가 그분들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리 조상들이 지금 영의 세계에 살고 계시며, 가족 역사 사업은 그분들께 필수적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 역사 사업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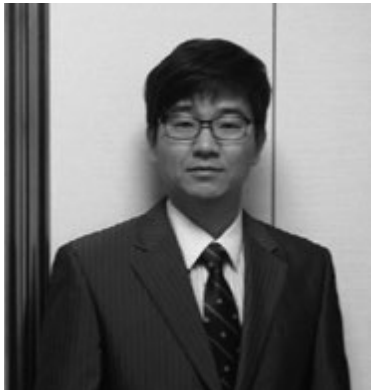
www.lds.or.kr/수원-화성-문화제-가족-역사-전시회에 접속하면, 행사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2분, 5분).

복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다

안양 스테이크 안산 와드 이상진 형제

40대에 들어선 이후로 나는 지쳐 가고 있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컸지만, 아들을 대하는 것이 어려웠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윈 탓에 이상적인 아버지상(像)을 정립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들과 대화 도중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낸 적이 많았다.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우리 형이었는데, 형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받고 미국에 있는 형을 방문하게 되었다. 1986년 침례받은 직후 저활동이 된 나와 달리



형은 귀환 선교사에 복음 안에서 가족을 이루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 오는 축복들도 누리고 있었다. 형은 복음을 통해 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교회에 다시 나가라고 권유했다.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 달에 겨우 4번 있는 휴식을 교회에서 보내는 것이 가능할지, 업무에 지장이 없을지 고민되었다. 하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한다고 느꼈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이 컸다. 나는 저활동이 된 지 28년 만에 교회에 돌아갔다.

교회에 참석하자, 놀랍게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면 피곤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월요일이 더 활기찼다. 훌륭한 회원들을 만나면서 내 신앙도 자라났다. 복음 원리를 배우고 회개하게 되었다. 복음이 삶에 스며들면서,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갔다. 복음은 가족의 의미와 아버지의 역할을 배우도록 도와주었다. 풍습과 법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복음 원리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과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 다른 회원들도,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속죄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함께 견디길 소망한다. 한편으로 나처럼 멀리 돌아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침례의 물가에서

50년 만에 돌아온 연어

대구 스테이크 안동 지부 강병철 형제 이금녀 자매 부부

2008년, 비회원으로서 리아호나 구독을 시작했다. 50여년 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인연을 맺은 탓이다.

1962년, 대구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한동안 이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대학 입시로 다소 교회를 등한시하며 침례의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떠올랐고 기도할 때마다 그리움이 깊어졌다. 하지만 30여 년간 다니던 개신교 교회에서 나와 아내는 직분을 맡아 봉사하고 있었으며, 많은 신자들은 내가 인도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리아호나만

열심히 읽을 뿐이었다.

2010년 3월, 안동 시내에서 선교사를 봤다. 무척 반가운 마음에 불러 세워 놓고도 개신교 교인으로서 다소 당황스러웠다. 다음 날 교회에서 만나기로 덜컥 약속하고 말았다. 아내에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 보자고 권유했지만, 아내는 강하게 거부했다. 한두 번 교회에 간 이후 아내에게 다시 권하자 아내도 함께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 공과 시간에 생각을 나누다가 개신교회의 형태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뭔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30여 년간 믿고 다녔던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우리 부부는 한

가지 껌을 냈다. 한 주는 내가, 다음 한 주는 아내가 안동 지부 안식일 모임에 번갈아 참석하고 나머지 한 주는 개신 교회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뒤 결정의 시기가 왔다. 어느 날,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은 정색하며 우리를 말리셨다. 그날 밤, 나와 아내는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 아내는 “이제 참된 교회를 찾았으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2013년 7월 6일, 우리 부부는 침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으며 남은 삶에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감격을 맛보았다.

얼마 전 미국 팔마이라의 쿠모라 산을 방문하여, 금판이 묻혀 있던 곳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목에 열이 차오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고 느꼈다. 나는 내가 옳은 결정을 했음을 다시 한 번 확신했다. 침례받기까지의 과정이 무척 힘들었고 오래 걸렸다. 언어가

고향에 돌아가는 데 약 5년이 걸린다는데, 나는 50년이 걸렸다. 남들보다 늦은 때에 교회에 들어온 것에 아쉬움도 있다. 하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



자립 ON, moving forward 자립의 소망, 열매를 맺다

1

오늘도 시범 자립 지원 센터(신촌)와 스테이크 자립 지원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모두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방문한다. 자립 지원 센터에서는 자립의 원리의 토대 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소망의 결실을 한 해 동안 게재한다.

자립 지원 센터 이용 후기

구직 활동에 도움을 받다

박상원 형제(이하 박 형제): 저는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의 박상원 형제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현재 특히 정보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 첫 직장입니다. 저는 신촌에 있는 자립 지원 센터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질문: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박 형제: 미래에 대한 조언과 정보를 얻었습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막연했던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좁혔고 취업하고 싶은 기업도 정했습니다. 또 해당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과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 계신 분들이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첨삭해주셨는데, 마음을 써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접 팁과 자신감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질문: 센터를 얼마나 방문했나요?

박 형제: 한 달에 4번 방문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방문하면 좋겠습니다. 방문 전에 약속을 잡고 가시면 좋습니다.

질문: 방문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박 형제: 구직 활동에 도움을 얻고 싶어 방문하는 것이라면, 관심 있는 분야와 기업의 리스트를 준비해 가신다면 더 좋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자매 8명/장로 1명



김미현 자매
영동 스테이크
분당 와드
대전 선교부



김채령 자매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대전 선교부



김하윤 자매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대전 선교부



박종민 장로
수원 스테이크
곡반정 와드
부산 선교부



안수지 자매
안양 스테이크
산본 와드
일본 도쿄 선교부



윤다영 자매
동대문 스테이크
교문 와드
부산 선교부



전부전 자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
뉴질랜드 해밀턴
선교부



주영은 자매
수원 스테이크
신갈 와드
대전 선교부



하도경 자매
강서 스테이크
화곡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울산 지방부

호계 지부: 추동수(전임: 홍종윤)

카카오톡 아이디 개설

Yellow ID

@리아호나



친구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앱의 아이디 검색 창에서 **리아호나**
또는 **종교 교육원**을 검색하고 **친구 추가**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1. 지역 소식 기사 제보
2. 리아호나 관련 문의

@종교교육원

1. 강의 정보
2. 학점 및 졸업 요건
3. 기타 관련 문의

지역 소식 기사를 모집합니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회원 여러분의 기사와
간증, 그리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구원 사업을 서두르는 성도들: 회원 선교 사업,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저활동 회원 활동 촉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겪은 와드/
지부나 가족/개인의 경험, 일화
2. 정원회 활동: 멜기세덱 및 아론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초등학교, 청년, 주일학교 등 각 단위
조직의 일화, 특별한 행사, 사연
3. 개인의 진솔한 간증과 봉사

보내실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소: 서울시 중구 신당6동 103-1번지 3층
리아호나 지역 소식 앞

이메일: kah_liahona@hanmail.net

전화: 02)2232-1441(내선 564)